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학부모의 역할

의정토론회

-
- 일 시 : 2015. 9. 16.(수) 14:00
 - 장 소 :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대강당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 16.(수) 14:00 ~ 16:00
- 장 소 :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대강당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 사 회 : 김성식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정책지원팀장
- 진 행 : 맹정호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기조발제 :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 지정토론자
 - 유광호 /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명옥 / 서산참교육학부모회 회원
 - 강혜원 / 도비스쿨(체험학습 기관)원장
- 자유토론 및 청중토론
- 폐 회

< 자료집 순서 >

■ 발 제

-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3
김승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 토 론

- ☞ 자유학기제와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 역할 21
유광호(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 ☞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의
역할 24
강명욱(서산참교육학부모회 회원)
-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28
강혜원(체험학습기관 도비스쿨 원장)

■ 참 고 33

- ☞ 2016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요약분
출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발 제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 김승보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발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박사 김 승 보

1.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정책의 의의

-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자유학기제
 -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꿈과 끼를 찾는 학교교육으로
 - 자유학기제는 토론과 실습, 참여 수업 등 수업 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등 운영모형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이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짐
 - 중학교 학생들부터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입시위주 교육으로부터 초·중고 교육 전반을 혁신(대통령 공약 사항)
 - ※ 자유학기제 운영의 승패는 ‘토론·실습·체험’ 활동을 교육과정에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텍스트 중심의 지식전달에서 컨텍스트 중심의 역량 교육으로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상은 현재의 교실 안 지식습득 및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
 - ※ 미래사회는 기존의 전문적 지식, 문제해결력 등에서 나아가 일반 교과가 담보 해내지 못하는 사회맥락적 능력, 문제의 개념화 능력, 기존의 지식의 융합 등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다니엘핑크, 2006).
 - 학생들의 체험활동은 학교생활 전반에 높은 발달 수준으로 이어지며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제시되고 있음.

※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 타문화 수용도 등에서 더 높은 발달수준을 보이거나 (성은모, 2012), 학생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 몰입수준을 제고하고, 무동기(amotivation) 수준을 낮추는 등 청소년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침(김현철·황여정, 2012).

○ **체험활동 기반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기회 제공 필요**

- 실제적인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이 학생들에게 접목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가 요구됨.

※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 변화,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에 대한 강조와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노력이 커지고 있음.(OECD, 2003).

※ 영국의 갭이어(Gap Year),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일본의 커리어스타트 위크 등의 제도를 청소년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 동원 사례로 해석 가능

- 세계 각국은 이미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자원의 연계를 통한 교육 지원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국가문화재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의 학생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 (프랑스)이나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협력하여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등 인력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창의파트너십(Creative Partership) 프로그램(영국) 등

□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범사회적 참여를 통한 확장된 청소년 학습생태계 형성**

○ **지역협력체계 형성을 통한 청소년 학습생태계 형성의 과제**

- 지역사회는 청소년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관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함.

※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토요일학교 등 프로그램에서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으나 상호 오해 및 무관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의 각종 기업 및 산업시설,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 소상공 자영업 등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전남 무주군) 등 다양한 명칭의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협의회(서울 성동구) 등 지역 단위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2015년 현재).

○ **청소년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학부모 참여가 요구됨.**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실제적인 교육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계 및 공공·민간 부문의 사회적 노력과 아울러 이를 연계하는 학부모의 참여가 요구됨.

※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지방조직, 공기업 및 유관기관 등 청소년들의 체험처로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체험학습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업·단체·기관 등 민간부문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일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주권자로서 학교-지역사회 가교(bridge)의 핵심적 역할 기대

II. 학교-지역사회 협력 및 사회적 지원현황과 과제

□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의 질적 변화와 협력 과제

○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통적 관심이 입시 위주로부터 실제적인 교육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 2014년 지방자치선거 자치단체장 공약분석에서 모든 지자체가 교육환경개선,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공약을 한 개 이상 제시

- 공약의 내용도 기존의 입시지원 위주(22.1%) 공약에서 체험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 (45.1%)으로 전환하고 있음.

[표1] 2014년도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교육공약 분석 현황

공약내용 구시군의장		일반적 교육공약*	명문대 입시지원**	체험 및 진로 활동 지원***	교육공약 없음
광역시 · 특별시	서울특별시(25)	24	9	16	0
	부산광역시(16)	16	1	4	0
	대구광역시(8)	7	0	5	1
	인천광역시(10)	10	0	5	0
	광주광역시(5)	4	0	1	0
	대전광역시(5)	5	0	2	0
	울산광역시(5)	5	1	1	0
광역시 · 광역시	경기도(31)	31	5	22	0
	강원도(18)	17	6	4	0
	충청북도(11)	9	1	5	1
	충청남도(15)	15	6	2	0
	전라북도(14)	13	3	8	0
	전라남도(22)	22	10	10	0
	경상북도(23)	22	3	9	1
	경상남도(18)	15	5	8	0
계 (226)		215 (95.1%)	50 (22.1%)	102 (45.1%)	3 (1.3%)

※ “일반적 교육공약” 항목 : 교육예산 확충, 증액 / 교육비 경감 / 무상급식 / 장학사업 및 학업지원(사교육비 경감) / 소외계층 학업지원 / 교육장 환경 개선 / 교육행정 개편 / 독서 및 도서관 문화 / 건강, 안전, 인권 / 학교 설립, 유치 / 평생교육 등

-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에 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이해 및 연계 제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 전략이 요구됨
-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토요일학교 등 학교-사회 간 협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경우 상호 오해 및 무관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존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각종 기업 및 산업시설,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 소상공 자영업체 등 사회적 자원을 학생들의 체험학습 자원으로 연계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산업·문화·복지 공간 및 시설, 인력에 대한 학교의 기대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리가 필요.
- ※ 이미 학교 안에는 교원 이외에도 진로코디네이터, 커리어코치, 문화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인턴교사, 방과후 보조교사, 원어민 교사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 ※ 청소년 학습생태계는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 확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 학부모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위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학교의 확장된 학습 공간 요구와 지역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곳이 지역협력체계이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공공·민간부문의 청소년 학습생태계 지원 잠재력 개발

-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업영역에는 청소년 대상의 직접적인 체험활동 지원 요소가 산재
- 부처별 청소년 관련 예산은 6조 5,024억 원이며, 이 중 교육부 예산을 제외하면 1조 6,046억 원임.
- ※ 1조 6,046억 원의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시설건립 및 장학금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는 6,726억 원이며, 이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5,338억 원임.
- 시설·장학금을 제외한 6,726억 원의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체험프로그램 예산은 2,952억 원이며, 이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 총액은 750억 원에 이룸

[표2] 중앙부처 청소년 관련 예산 총액 현황(2014년)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각 부처 청소년 관련 예산 총액	65,024			
교육부 제외 청소년 관련 예산 총액	16,046			
시설·장학금 제외 청소년 관련 예산 총액	6,726			
청소년 예산 중 중학생 대상 예산 총액	5,338			
청소년 대상 체험 관련 사업 예산 총액	2,952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관련 사업 예산 총액	750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정부부처별 사업에서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관련 사업 예산 총액은 28개 사업 750억 원에 이르러 교육부의 진로체험 관련 사업 139억 원(2014년 기준)의 5배를 상회
 - 또한, 92개 사업 2,952억 원에 이르는 청소년 대상 체험 관련 사업은 직접적인 진로 체험 사업이 아니지만, 접근방식에 따라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사업으로 활용할 소지가 많음.
- ※ 예산 분석 결과, 청소년 대상 사업이나 중학생 관련 사업이 없는 부처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와 국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청소년 체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3] 부처별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201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청소년 대상 사업		중학생 관련 사업		청소년 체험 사업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사업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계	672,562	174	553,515	151	295,196	92	75,045	28
부처별 평균	26,902	6.96	22,141	6.04	11,808	3.68	3,002	1.12
보건복지부	243,472	14	243,472	14	99,244	2	0	0

여성가족부	165,181	55	111,738	27	26,620	16	16,864	8
문화체육관광부	99,419	30	86,076	48	59,624	18	29,689	2
중소기업청	33,800	2	5,000	1	33,800	2	5,000	1
경찰청	28,782	5	28,432	4	488	1	488	1
고용노동부	16,895	3	7,799	2	16,438	2	7,342	1
산림청	12,472	2	12,472	2	12,472	2	0	0
법무부	11,514	6	2,261	3	2,120	2	2,090	1
특허청	9,342	1	9,342	1	9,342	1	9,342	1
미래창조과학부	7,358	3	7,358	3	100	1	100	1
통일부	7,178	3	7,178	3	3,827	1	0	0
농림축산식품부	6,780	2	5,350	1	6,780	2	0	0
환경부	6,490	8	4,390	7	6,490	8	0	0
방송통신위원회	4,691	3	4,691	3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3,220	5	3,220	5	3,220	5	2,220	4
외교부	2,847	6	2,412	6	2,847	6	640	6
안전행정부	2,600	1	2,600	1	2,600	1	0	0
해양수산부	2,405	3	2,405	3	2,405	3	0	0
소방방재청	1,954	1	1,954	1	1,954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951	3	1,221	2	659	1	0	0
국가보훈처	1,329	6	1,329	6	1,329	6	0	0
문화재청	1,317	9	1,250	5	1,317	9	0	0
농촌진흥청	1,270	1	1,270	1	1,270	1	1,270	1
국민권익위원회	250	1	250	1	250	1	0	0
국방부	45	1	45	1	0	0	0	0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표4] 정부부처별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의 예

▽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

예산	대상	실적	일정	주요내용	협력 요청
비에산	청소년 보호자	약40,000 (명)	연중	지역사회 일반청소년 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교육 프로그램을 중학생 대상으로 집중 편성, 해당 프로그램 외에도 법 관련 이해교육 프로그램 변형·개발

▽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예산	대상	실적	일정	주요내용	협력 요청
1,430 (백만원)	민간단체 22(개), 초등학교 50(개교)	약 35천 (명)	연중	청소년 농어촌체험 지원을 위해 체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하고 중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지역의 학부모 또는 시니어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

-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청소년 교육과 연계가 높은 민간단체, 일반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대기업 등 기업부문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등에도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5] 대기업 사회공헌활동 중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의 예(2014)

기업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프로그램 실적
IBK기업은행	IBK 자연누리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대상 자연경관, 유적지 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163회에 걸쳐 7,981명에게 프로그램 제공
한국항공 우주산업	에비에이션 캠프프로그램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 체험, 견학을 통한 Steam교육	연간 6,000명규모의 전국적 학생, 교사연수
한국씨티은행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청소년,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금융교육	총교육수혜인원 46,815명

기업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프로그램 실적
한국수력 원자력	아인슈타인클래스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방학동안 교과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2013년까지 누적멘티 약1,300 여명
삼성전자(주)	진로멘토링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 제공, 중고생용 교재개발	1만명 이상 학생 참여
삼성생명(주)	사람, 사랑 세로토닌드림클럽	청소년캠프, 교사워크숍, 멘 토데이, 드림페스티벌개최	4년간 160개 중학교에 드림클 럽창단
LG유플러스	두드림U+요술통장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150명,멘토150명참여

- 민간부문 각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그 자체로 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학습
자원이며, 민간부문 자발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학습생태계를 형성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문화·예술계(한국박물관협회, 예술인협회 등), 보건복지계(의사협회, 약사
협회 등), 법조계(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등) 등 1200개에 이르는 다양한
민간협회 차원에서도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여러 자원과 교육에 대한 지원 역량이 발현되는 구체적
현장은 결국 지역사회 단위라 할 수 있음.

-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
한 자원에 대한 목록 조사 및 이를 통한 입체적인 학습 생태계 지도를 그려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Ⅲ.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역할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정책 추진 경과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계획.지침 수립

- 「2014년 진로체험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수립('14. 4.)

-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침」수립('14. 6.)
- 「2015년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계획」수립('15. 2.)
- **교육지원청, 관할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 대상 컨설팅, 워크숍을 통한 지역 협력 기반 조성**
 - 지역협력체계 이해 제고 및 협력 유도를 위한 컨설팅* 실시('14. 6.~7.)
 - * 전체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실시
 -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 사항 협의를 위한 컨설팅('14. 9.~10.)
 - * 16개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0회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지원)청 워크숍 실시('14. 11.~12.)
 - *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권역별(홍천, 경주, 변산) 실시
 - 지역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컨설팅* 실시('15. 4.)
 - * 전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대전, 부산) 실시
 - 지역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15. 5.)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센터 활성화를 위한 도별* 협의회 실시('15. 5.~6.)
 - * 충북(5.7.), 세종(5.20.), 전북(5.29.), 경기(6.2.), 전남(6.4.)
 - 지역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자유학기·진로체험실무센터 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15. 7.)
- **중앙부처 협의 및 안건 상정을 통한 정책 협력 유도**
 - 여가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참여 유도 협의('14. 5.)
 - 행자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지역협력체계 구축 협조 요청('14. 8.)
 - 행자부 주관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안건 상정('14. 6.~12.)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간담회 안건 상정('15. 1.)
 - 행자부 주관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 안건 상정('15. 2.)
 - 여가부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지원 협의('15. 3.)
 - 행자부 주관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15. 6.)
 - 교육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15. 6.)

□ 추진 모형 및 설립·운영 현황('15.6.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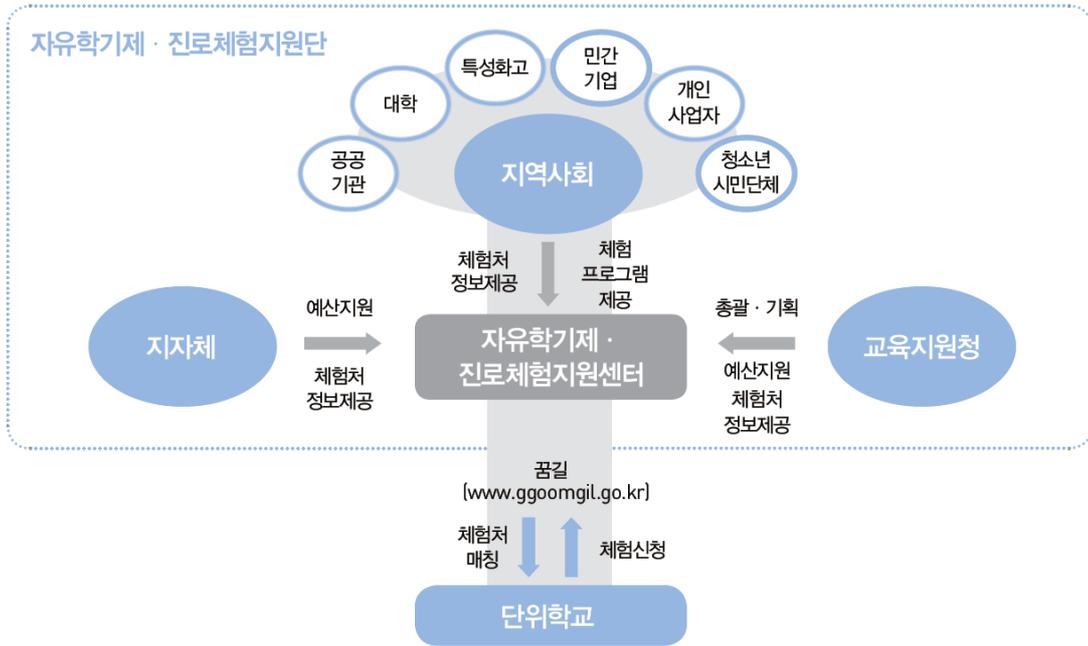
-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여 기관장 간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장학사, 기초지자체 담당자,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교사, 퇴직 교사, 청소년 관련센터, 지역사회 인사 등 10~20명으로 구성
 -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포함)에서 177개 지원단 구성('15.6기준)
 - 반기별 1~2회의 정례적 협의를 갖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지원단 활동 예시

교육지원청	구 성	활 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17명)	교육지원청(4명), 구청(2명),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2명), 학교 진로 교육부장(4명), 학부모(4명), 문화 센터(1명)	- 센터 설립 및 운영 실무 협의 - 체험처 발굴 역할 분담 협의 - 체험처 발굴 지원 공문발송(48개 기관) - 체험처 발굴 지원 유선연락(500여개 기관) - 430개 체험처 발굴
경기도 안산시 (14명)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2명), 학교 (4명), 학부모(2명), 고용센터(1명), 상공회의소(1명), 청소년단체(2명)	- 센터설립 및 운영 실무 협의 - 체험처 발굴 역할 분담 협의 - 체험처 발굴 지원 공문 발송(38개 기관) - 체험처 발굴 지원 유선 연락(75개 기관) - 40개 체험처 발굴
충청남도 태안군 (20명)	교육지원청(2명), 지자체(2명), 학교(5명), 학부모(2명), 청소년 단체(1명), 지역사회단체(5명), 지역 기업(3명)	- 체험처 발굴 역할 분담 협의 - 체험처 발굴 지원 공문 발송(21개 기관) - 체험처 발굴 지원 유선 연락(21개 기관) - 20개 체험처 발굴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의 실무센터로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담당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 모형>



- 14개 시도(광주, 충북, 제주 미포함) 130개

※ '15.7.~'16.2. 설립예정 74개('15.7.~8. 설립예정 60개)

<시도별 설립 및 설립예정 센터 수>

센터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설립	25	9	4	8	0	2	5	1	8	2	0	13	13	13	12	15	0	130
'15.7~8 설립예정	0	0	0	0	0	2	0	0	10	15	10	1	1	9	11	1	0	60

※ 지역센터 설립 현황 비교('15.3.31기준 / '15.6.30.기준)

센터수	'15.3.31	'15.6.30.	비고
설립	67	130	
설립예정('15.7.~'16.2.)	84	74	
기타(설립 미정)	51	6	경기(4), 경남(2)
합계	202	210	부산(2), 경기(6) 시군구 추가

- 운영형태: 위탁운영 77개, 지자체직영 6개, 교육지원청직영 47개

- 센터 기능: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학교 매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 ※ 발굴·관리 체험처 수 : 11,564개, 온라인 매칭(꿈길)을 하는 센터 수 : 107개,
학생 대상 자체 프로그램 수 : 3,328개, 학부모 대상 자체 프로그램 수 : 460개
- 인력현황: 130개 센터 총 인력 480명, 센터당 평균 인력 3.7명
-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 335명(70%), 계약직(진로코치포함) : 145명(30%)

□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 **지역사회의 자원을 청소년 학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려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일상적 직업 활동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관찰하고 대화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 ※ 학부모가 근무하는 직장 혹은 가게에서 자녀 및 일반학생들의 직업체험
(CEO체험 등)제공
- **지역 내 공공부문 기관·시설이 고유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검토하여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으로 유도**
 - 지자체 및 정부부처별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 중 자유학기제·진로체험
활동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 사업을 확인하여 기관 고유의 예산 목적 연장선에서
체험활동으로 유도
 - ※ 문화부의 ‘찾아가는 박물관’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 국민안전처의 이동
안전체험차량 사업 등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고용지원센터(고용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특화사업을 개발
 - ※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고용지원
센터 직업상담사의 직업강의 학교 파견 등
 -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특정 기관/단체/조직 내 일상의 업무에 대해 다양하게 관찰
하고 대화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이들 기관/단체/조직의 업무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 정부, 지자체의 업무가 대체로 사무행정 비중이 높지만, 사무행정에도 부서별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차별화되므로 이들 부서를 골고루 체험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을 청소년 학습과 연계하는 역할에 학부모가 적극 담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 학부모 역량 개발 지원 및 학교 정책 및 실무 참여, 주민으로서 지자체 의사결정과정 참여(예: 지자체 학부모위원회 운영) 등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시설·조직에 속한 직원은 개인 차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
 - 직원들의 교육기부 활동을 사내 '사회공헌 포인트'로 적립해 인사에 가산점 부여 등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자발적 인센티브 제공 권고 등
 -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해당 임직원 역시 학부모이며,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강의, 실습, 간접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 지역별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직장인의 자녀 학교 일일교사로 파견하거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학부모를 청소년 체험지원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할 부여
 -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현장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체험처를 찾아가 청소년 진로체험의 필요성과 가치를 전달하고 체험처 개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
 - ※ 발굴 체험처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체험처 이전, 폐쇄, 참여 의사 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 직접 발굴한 체험처에서 체험을 진행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체험 멘토 혹은 가이드로서 참여하여 체험활동 사전 및 사후교육 그리고 멘토링 활동 직접 진행.

- ※ 체험활동 시 주의사항, 체험처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실시
- ※ 학생들이 체험처까지 안전하게 이동 및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안전대응 체계도를 바탕으로 현장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
- ※ 체험처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경우 동영상 및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향후 진로체험 운영 평가 자료로 활용.

▶ 토론

■ 자유학기제와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 역할

- 유광호(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의 역할

- 강명욱(서산참교육학부모회 회원)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강혜원(체험학습기관 도비스쿨 원장)

(토론)

자유학기제와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유 광 호

1.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생학기제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평가는 학생의 참여에 따른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가. 운영 모형

- 1) 진로탐색 중점 모형
- 2) 주제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 3)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 4) 예술·체육 중점 모형

나. 진로교육법이 2015. 6. 22 공표 되어 2015. 12. 23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6년 전국의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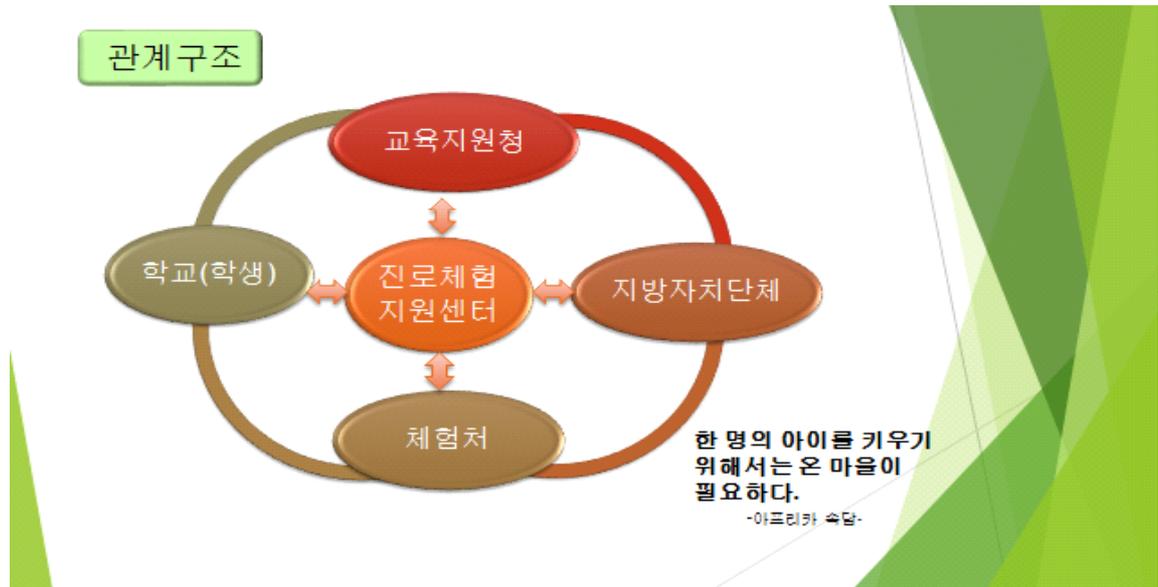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 기관에서도 의무적이면서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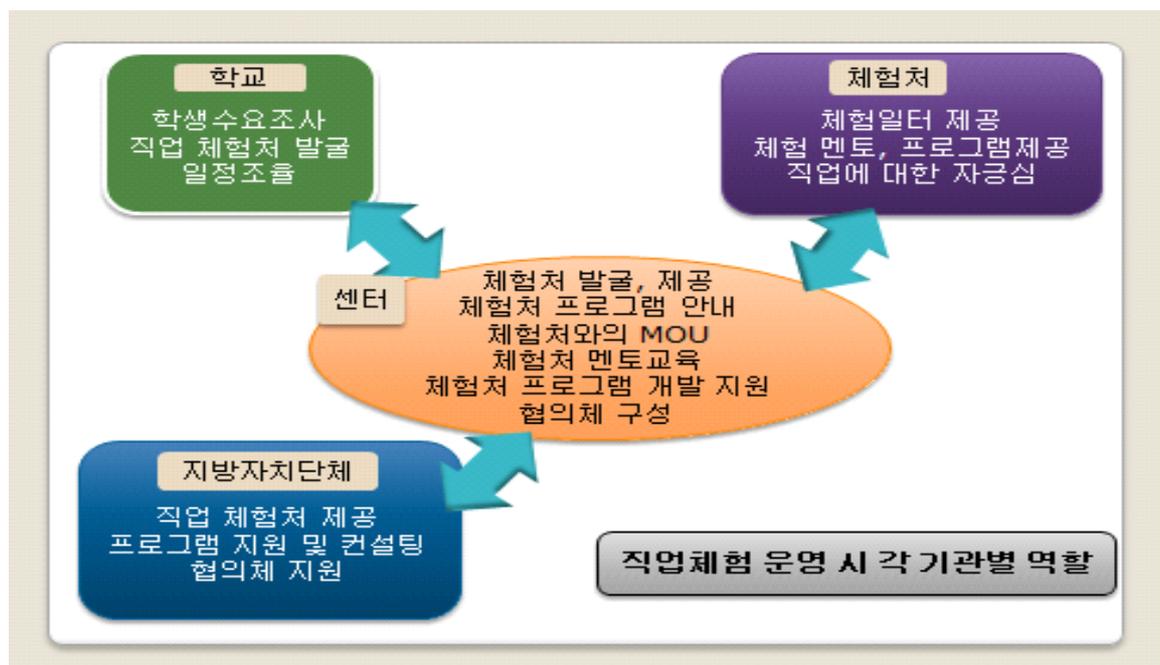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982년 10월 충남협의회로 발족되고 1997년 서산협의회로 창립이 되었다.

2010년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하였고, 2015년 7월 1일 서산진로 체험지원센터를 수탁하여 2016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관계구조



4. 직업체험 운영 시 각 기관의 역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가. 체험처 발굴, 제공
- 나. 체험처 '꿈길' 등록, 승인
- 나. 체험처 프로그램 안내
- 다. 체험처와의 MOU
- 라. 체험처 멘토 교육
- 마. 체험처 프로그램개발 지원
- 바.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사. 강의 메뉴얼 개발 지원, 강사 발굴

<'꿈길'-진로체험 지원 홈페이지 : <http://www.ggoomgil.go.kr>>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의 역할

서산참교육학부모회

회원 강명옥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운영하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자유학기제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됩니다.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학습 등 참여하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셋째,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교과의 시간수를 일부 감축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과정을 진행합니다.

넷째, 중간, 기말 등 특정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등 자유학기제에 맞는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본격적인 성적경쟁으로 내몰리게 되는 중등과정 초기에 비록 한 학기지만 자기의 꿈과 끼에 대하여 생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공교육 안에서 마련해 준다는 개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자유학기제’라는 제목 외에 제대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물어 보아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생소해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 관심을 갖는 학부모조차도 자유학기제라는 이름만으로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까’,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해야지’, ‘아이의 공부습관을 버려놓지는 않을까’, ‘기초를 다져야 할 시간을 낭비해 수업차질이 나면 어쩌나’ 등 일단 불안과 걱정부터 앞선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여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졸속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그 취지에 맞는 폭넓은 경험을 시켜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에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왜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실천과제가 나온 것이라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면, 201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현실 적합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은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기대와 걱정사이, 자유학기제” 발제문 중)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학기제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중요한 교육정책인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을 교육당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학생평가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통로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각계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정을 갖고,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와 인식을 넓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가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에 관한 토론회 영상을 보게 되었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하였고, 현재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있는 중1 학생들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간 중2학생 총30명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였다. 그 토론회에 나온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기의 꿈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풀이식, 암기식,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표 하기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수업방식이 좋았다.

무엇보다 공부가 아닌 그저 시간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자체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리수업을 통해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이야기 되었다. 자유학기제를 이미 경험한 어떤 학생은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 내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많은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는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만들고, 그 제도를 이행해야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매우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자체, 교육협력기구, 유관기관 등이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기본 교과목에 관한 평가의 문제이다.

기본교과의 시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교육과정 축소 없이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을 겸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의 이종고는 시작된다.

또한 상급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기본 교과목 위주의 형성평가는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율과정의 체험프로그램을 미리 정해놓고, 적성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았다. 학생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라도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조금씩 그 수를 늘여가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모범적인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토론이나 연수를 통해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목적은 단순한 직업체험이 아니라, 진로탐색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 즉,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도 저도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등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끝없이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는 충남지역에서 이러한 목적의 자유학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충남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대학입시 경쟁이 있는 한 자유학기제의 근본취지는 영원히 무용지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준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유학기제 동안 모든 평가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왕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의 한 학기를 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 중학교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대신 철학과목을 필수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철학적인 사유의 힘을 길러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체험학교 도비스쿨

원장 강혜원

2008년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방한했을 때, 한국의 교육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후 우리나라가 미래 사회를 위한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려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하곤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학업 성취 수준은 최상위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어린이 행복지수”가 6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는 오늘날 교실 풍경에서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무시한채 획일적이고 방대한 지식을 오직 주입하고 암기하는 식의 교육적인 문제점과 두 번째로 친구들과 간에도 성적과 순위에 집착해 수업에 임하거나 아예 수업을 외면하는 학생으로 나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성인이 되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떤 교육자가 말했듯이 “우리 교육의 주입식.암기식 교육보다 더 큰 문제는 꿈마저 주입당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며, 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꿈을 정하기보단 부모의 희망에 따라 또는 성적에 따라 꿈마저 주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게 도와주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 양상이 복잡해질 것은 분명하다. 97년 IMF이후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있다. 결국 직장은 직업에 따라 여러 번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내적 동기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오래 버틸 수 있는 저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이와같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그러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문제해결력·고등사고력을 키워서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간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체험처 5만8882개, 체험 행사 10만2507개를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진로교육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 제공이 의무화되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어진다. 거기다 전경련, 경제계 진로 탐색 네트워크 참여 기업(50개)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 기업, 협회·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기업 및 지역 사회의 체험자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발빠른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교육개혁의 의지를 볼 수는 있으나, 과연 체험처나 확보된 체험 행사 숫자의 외형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질 높은, 정말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형으로 진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느냐를 볼 때 현실은 위에 표기된 숫자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입장에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겠다.

첫 번째 청소년들이 찾아가 체험하는 진로직업 체험처에 관한 협력방안의 부재이다. 도비스쿨은 2014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청소년 진로교육멘토단의 멘토로 위촉되었으며, 그간 다수의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방안과 지원방안등에 관해서는 연결고리가 없었다. 현장은 학교와는 다르다. 이는 각 체험처는 고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현장이지만, 막상 현장의 실정은 청소년들에게 그 직업에 대하여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얻는 역량과 자질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이 1~2년을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처의 전문 인력의 배분과 공간 및 교수 방법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것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체험처간에 상호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진로직업체험을 나오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위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진로직업체험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중 일부는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여 대충 대충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학교내에서 진로직업체험을 나오기 전에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과 희망하는 곳을 순위로 하여 체험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 역시 행정상 획일적으로 다니다 보니 적성과 관심이 없는 곳에서 시간의 낭비와 제정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부터 사전에 개인별 관심도와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직업선택에 필요한 로드맵부터 작성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시간의 모순이다.

2014년에도 인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진로 직업체험을 하고 다녀갔다. 오전 10시경에 와서 오후 3~4시에 돌아가니 총 4~5시간 정도 체험하고 간다. 이 시간동안 관계자는 2~3개의 프로그램을 원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와서 2~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면, 체험의 목적과 성과를 포인트로 잡기보단 프로그램이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단계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그러다 보니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어떤 체험처나 기관이든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서너 시간내에 표현하고,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기에는 무리가 분명 있다. 한편의 글을 써도 도입과 전개 그리고 결말이 있듯 한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체험 기간을 가져야 그 직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작업장에 나가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직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도비스쿨은 작년과 올해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직업진로체험을 진행하면서 자유학기제를 먼저 실시한 외국 사례를 연구하다보면 분명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그 성과를 높이 본다. 분명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아닌가 하지만, 단 시간안에 조기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현장에 정착되기 전 부작용의 우려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 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및 각 체험처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역량은 창의 인성이다. 창의인성은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도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지식을 수용하기보다는 생성하는 사람, 상황 적응적이기보다는 상황 주도적인 사람, 수동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사람, 기계적이기보다는 융통성 있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내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핵심 역량을 찾아 내 지속적으로 키워 갈 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힘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 2016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 출처 : 교육부 장관(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요약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주요사항

- ◆ (학기)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 학교와 지역의 특성 반영(운영의 다양화), 자율성 제고, 체험자원 분산
 - ◆ (교육과정) 학생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
 - *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 ◆ (진로체험) 학생들이 희망을 반영한 체험활동 2회 이상 실시
 - ※ 체험 방식(간접 체험, 직접 체험), 체험 기간(단기간, 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인식, 탐색, 체험)로 균형감 있게 편성
- ◎ '16년도 체험처 47,300개, 프로그램 94,600개 필요(중 1기준, 473,116명)
 - ※ 10명 소그룹 단위로 2회 체험활동 실시, 체험처당 2개 프로그램 운영 기준
 - ☞ '15년 확보된 체험처(체험처 58,882개, 프로그램 102,507개. '15.7.16)를 '16년과 연계, 프로그램 질 관리, 안전 관리 강화(~ '16년 2월)
- ◆ (확산) 수업·평가 혁신, 자유학기 활동 등을 일반 학기와 연계·확산(「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 '16년, 80교)
 - ※ 실천사례 연구대회 신설, 학생주도 활동중심 수업 모형 확산
 - ◆ (고입)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 주요사항 시·도별 조기 예고
 -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나, 자유학기 활동 등 비교과 영역(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반영
 - ◆ (향후 일정)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 수립('15.12) → 학생부 양식 개정 완료('16.2) → '16년 체험활동 준비 완료('16.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16.3)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을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 ◆ (국정과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의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학습(활동) 과정과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술

□ 추진 경과

- '13~'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13.2학기 ~)
 - ※ ('13) 42교 → ('14) 811교(25%) → ('15) 2,551교(80%)
-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처 협력 방안 보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개최(1차 : '15.3.27. 2차 : '15.6.25)
 - ※ 국무회의('13.3.18.), 국가정책조정회의('14.10.23), 사회관계장관회의('15.2.13) 등
-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8), 진로교육법 제정('15.6.22 공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제시('15.9 예정)
 - ※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운영의 중점', '교육청 수준 지원' 등에 반영

II 추진 성과

1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만족도 향상)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 결과, 참여와 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13년도 운영 만족도) 학생 : 3.34 → 3.72 학부모 : 3.45(사후) 교원 : 3.88(사후)
('14년도 운영 만족도) 학생 : 3.79 → 4.02 학부모 : 3.86 → 4.02 교원 : 3.85 → 4.15
- (공감대 확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14 ~ '15년 연속 당초 계획 대비 희망학교 수가 크게 증가함
※ 희망학교 : ('14) 600교 → 811교, ('15) 1,500교(50%) → 2,551교(80%)

2 꿈·끼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 (교실수업 혁신)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 평가 실시
- (다양한 꿈·끼 탐색 활동)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 확대

3 중앙 - 지역으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 확충

- (교육부) 중앙부처, 민간기관,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험처 확충 내실화
- (교육청)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체험활동 지원 내실화
※ 모든 교육지원청(177개)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15. 7)
130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15. 6.30), 74개 추가 설립 예정('15. 12)
- (운영학교) '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로 체험처(58,882개, 162%)와 체험 프로그램(102,507개, 141%) 확보('15. 7. 16)
※ '15학년도 2학기 운영 대상 : 2,500교, 363,892명

III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자유학기제의 개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운영 모형

★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 평가 및 기재 과정 중심 평가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 » 교육과정 재구성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 »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 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험 제공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 » 학생의 꿈·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

※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적절하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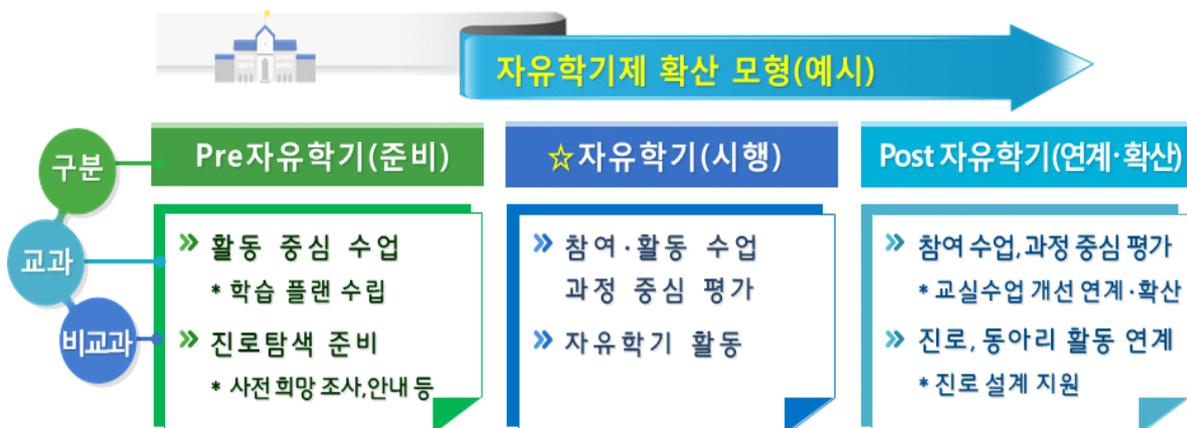
□ 운영 학기

-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기를 정함
- ※ 학교와 지역의 특성 반영(운영의 다양화), 자율성 제고, 체험자원 분산

IV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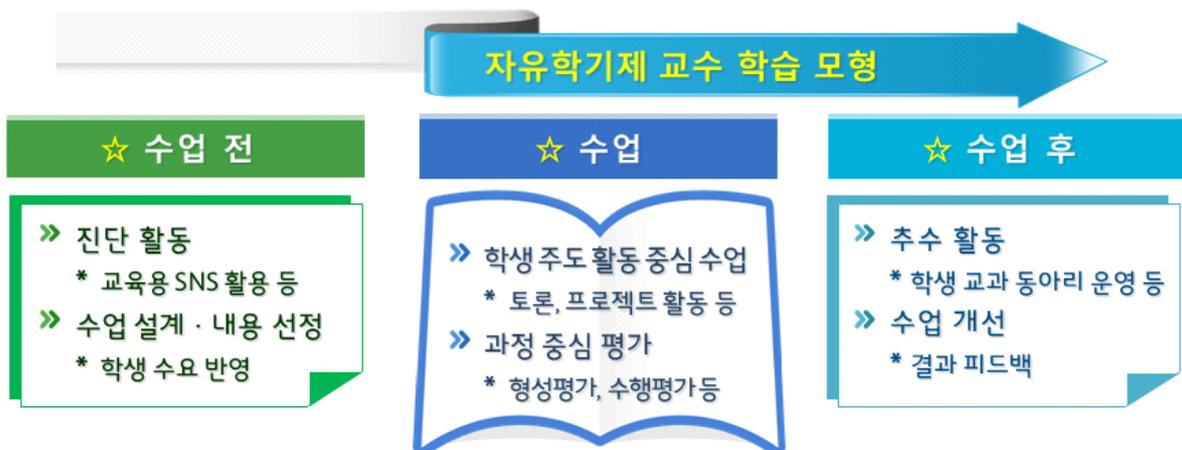
1.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학교 현장 안착 지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8 예정)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
 - *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 학생부 기재 및 나이스 교육과정 편제 지원
 - 자유학기 동안의 꿈·끼 관련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 16.2)
 - ※ 교과 ‘성취도’란에 ‘P’ 입력, ‘자유학기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 신설
- 자유학과 일반 학기의 연계를 통한 꿈·끼 교육 확산
 - 자유학기의 성공 사례를 일반 학기로 확산*하여 학교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모델학기·선도학기로 활용
 - *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진로탐색 활동 등을 일반 학기와 연계 운영
 -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 연구학교 지정(16년, 80교)



2.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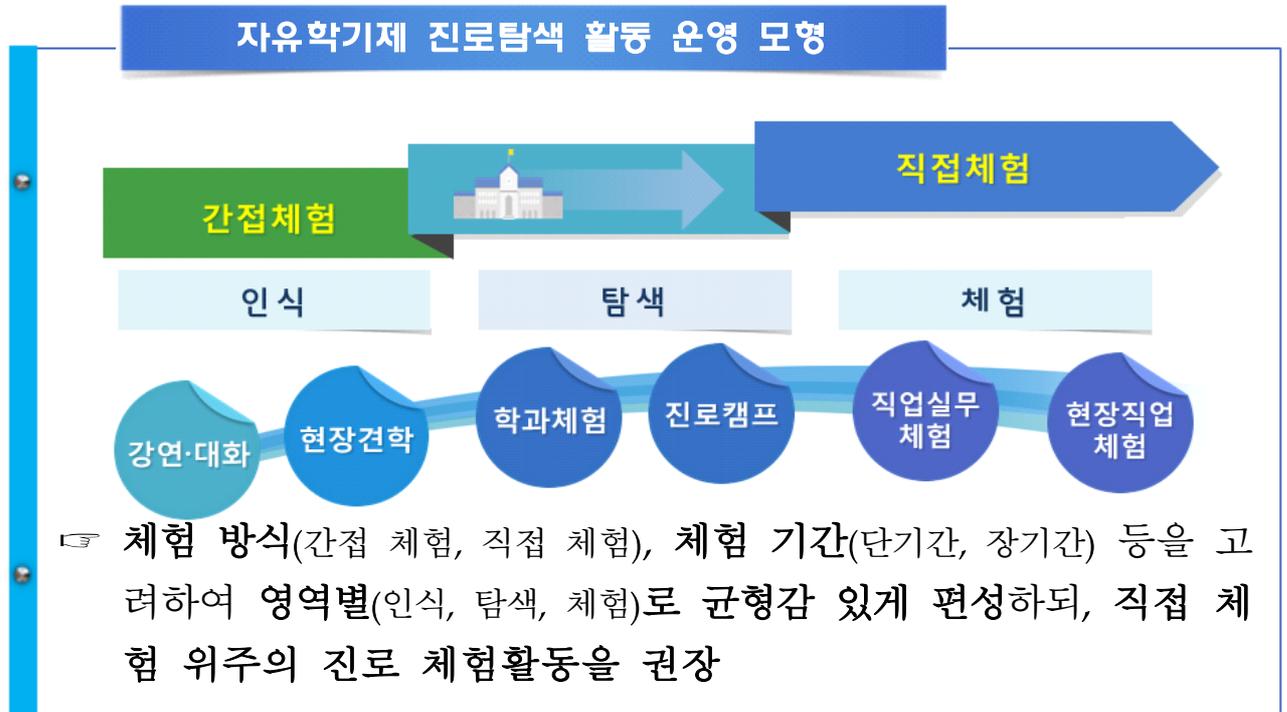
-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토론 수업 활성화
 - 교과 교육과정의 적극적 재구성을 통한 교과 및 학습 주제간 융합 수업을 실시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
 - ※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하고, 실생활 연계 수업 강화
-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교실 수업 개선 지원
 - (연수과정 체계화) 교원의 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 자유학기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과정 개설
 - ※ ‘기초과정 → 심화과정 → 전문가과정’ 등 단계적인 자유학기제 연수과정 개설
 - (학습공동체 구축) 주제별·교과별 학생 활동 중심 수업개선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 ※ (‘14년) 30개 → (‘15년) 126개 → (‘16년) 340개 운영
 - (연구대회 추진) 중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신설(‘15년)
 - (수업 모형 개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키우고, 참여·활동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 개발·보급



3. 꿈·끼 탐색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

□ 진로탐색 활동 운영

- (진로학습)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 토대 마련
 - ※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 (진로체험)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처에서 현장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등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
 - ※ 학생부 진로활동 기록 사항을 상급학교에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교육 및 상담·지도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 주제선택 활동 운영

- (목적)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제공
-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을 적극 운영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체험·사례 중심의 헌법교육, 경제교육, 인성·행복교육 내실화

□ 예술·체육 활동 운영

- (목적)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 실시
 -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예술·체육 관련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문화·예술(뮤지컬, 연극 등), 체육 교육 활성화
- * (‘16년) ‘예술명예교사의 학교로 찾아가는 렉처콘서트(강연+콘서트)’ 운영

□ 동아리 활동 운영

- (목적)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 꿈·끼 탐색 동아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여 자치 능력, 자율적 문제 해결력 함양
 - 학생 동아리 한마당, 지역 진로체험 페스티벌 등에서 동아리 활동 결과를 합동 발표하는 등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 강화
- ※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 지원」(‘15년) 1,300개 → (‘16년) 2,000개 동아리

4. 과정 중심의 평가 내실화

□ 기본 방향

-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평가 실시
- ※ 교과에 대한 태도와 흥미, 동기, 인성 등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 활성화
-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형성평가, 수행평가 강화
- 평가 결과는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참여도 및 태도, 꿈·끼 관련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식으로 기재
- ‘자유학기 활동’은 활동 내용, 참여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요령에 준하여 기재
- ※ 학생들의 평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형성평가 결과 등을 학생 발달지 형태로 누가 기록하여 수시 피드백 실시

□ 고입 관련

- (전형 계획 조기 예고) '16년 전면 시행 대상 학생의 고입 전형 계획 주요 사항을 조기에 예고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나, 자유학기 활동 등 비교과 영역(출결,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반영

V

체험활동 자원 확충

- ◆ '16년도 전면 시행시 필요한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보
 - ▲ (목표) '16년도 중학교 1학년 기준 473,116명이 참여하여, 체험처 47,300개, 프로그램 94,600개 필요
 - ※ 10명 소그룹 단위로 2회 체험활동 실시, 체험처당 2개 프로그램 운영 기준
 - ▲ (실적) 체험처 58,882개, 프로그램 102,507개 확보('15.7.16)
 - ▲ (계획) '15년 확보된 체험처를 '16년 운영학교와 연계하고, 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및 안전 관리 강화(~'16.2)

1. 체험 기관 및 프로그램 확보

□ 공공부문(정부, 대학 등)의 진로 체험처 제공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자원 제공 의무화 및 공공부문 체험처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체험 자원 지도 제작(~'16.2)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문 인력, 대학생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과와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 대학·전문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을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국립대학 혁신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 민간부문의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

- 기업들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전경련) 「경제계 진로탐색 네트워크」 체험형 프로그램(50개 기업) 운영
- 주한 외국대사관(문화원, 외국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관계자 협의회 등 추진

□ 체험자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앙행정기관, 기업, 대학·전문대학 등의 체험 프로그램 확충 및 학교 연계
 - ※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의 체험처, 체험 프로그램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에 탑재하여 학교와 연계(~'16.2)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실시
 - * ('15.7) 24개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운영 → ('15.12) 100개 기관으로 확대

□ 지역사회 체험자원 발굴·연계를 위한 지역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관장 협의회 운영 및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조직·운영
 - ※ 모든 교육지원청(177개)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15.7)
130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15.6.30), 74개 추가 설립 예정('15.12)

□ 농어촌 지역 진로 체험활동 지원

- (프로그램 우선 배정) 공공·민간기관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정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강사 지원' 등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농어촌 학생들이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확대 운영
 - ※ ('13년) 39교 → ('14년) 306교 → ('15년) 모든 농어촌 지역 자유학기제 학교(1,028교)

- (진로체험 버스)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진로체험 버스 방방곡곡' 운영
 - ※ 6개 모델(기업사회공헌형, 미래창조사회체험형, 찾아가는 멘토형, 시설체험형, 학과·직업체험형, 영화체험형)을 기준으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등과 함께 추진

2. 체험 프로그램의 질 제고

□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및 확대

-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직업체험 우수 기관으로 인증*
 - *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 대상 인증마크 부여
 - ※ 「진로교육법 시행령」(‘15. 12월)에 인증 절차, 내용 등 필요 사항 명시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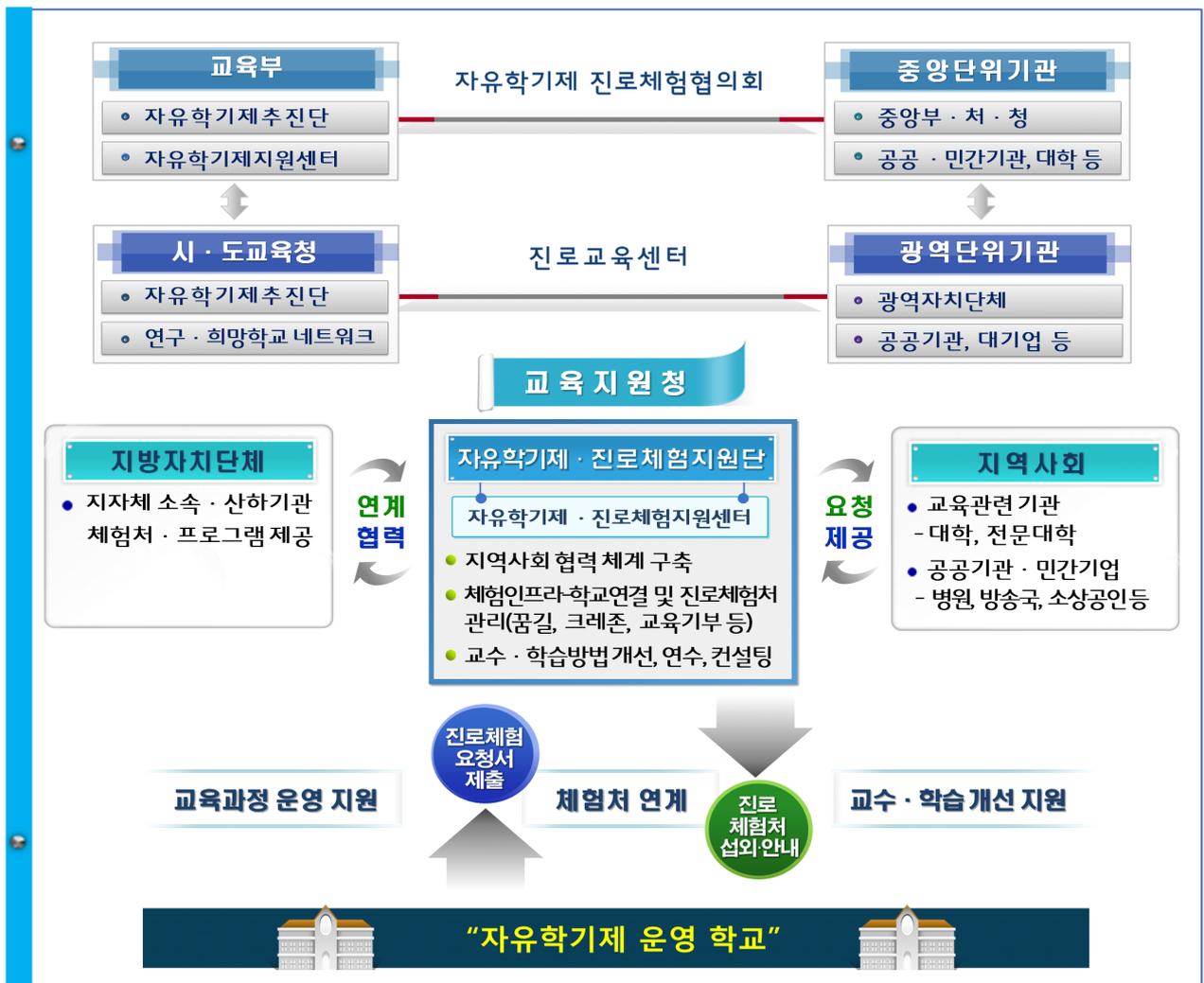
- 학교·교육청용 '진로체험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진로체험 유형별 사전 교육, 체험 진행, 사후 교육 모듈 개발
 - ※ 체험기관용 '진로체험 운영 및 꿈길 활용 매뉴얼(6종)' 개발·보급(~'15.8)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1학교 1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하여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 매뉴얼 발간 보급('15. 9)

3. 안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전 단계) 안전대책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전 현장 답사
 - 교사와 함께 안전한 진로체험 지도·지원을 위한 학부모 진로코치, 학부모 지원단 등의 진로체험 보조인력 활용
 - ※ 체험활동 참여 학생, 인솔자, 일터 제공자 대상 사전교육 강화

- (운영 단계) 진로체험 유형별 안전수칙 강화, 체험활동 운영 단계별 점검표 확인, 안전요원 연수 시 안전교육 이론·훈련 병행
 - 진로체험 담당 교사와 일터 멘토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시·도 교육청별 체험기관 안전대책 마련·시행여부 점검(~'15.8)
- (사후 단계) 인근 병원, 경찰서 등과 연계한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책임자 보고 및 보호자 연락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응
 -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처에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감사패 수여, 감사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

VI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1. 중앙 정부

□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8),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15.9)
- 학교생활기록부 '자유학기 활동' 기재란 신설 등('16.2)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교당 20백만원 내외)('15.11)

□ 교사의 자유학기제 실행 역량 제고

- 자유학기제 운영매뉴얼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추진('15년)

□ 체험자원 확충 및 정책 공감대 확산

- 부·처·청, 민간, 대학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중앙 → 광역 → 지역'으로 이어지는 체험자원 확보 토대 마련
-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2. 시·도교육청

□ 자유학기제 추진 체계 구축

-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구성(단장 부교육감)하여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총괄
- 새 학년도 시작 전에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및 평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연수·컨설팅

- 수업·평가 개선, 체험활동 우수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및 자료 개발·보급

※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 ('14년) 30개 → ('15년) 132개 → ('16년) 340개 운영

□ 학생 체험활동 지원

-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고, 체험활동 시기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이동차량 지원, 찾아가는 진로 체험 지원단 및 진로체험 버스 운영 등 농어촌 지역 체험활동 지원 방안 마련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3. 교육지원청(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사연구회 운영 강화
- 학교별로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진로상담, 체험활동(동아리·캠프 등) 등을 통해 학습동기 제고 방안 병행 활용

□ 학생 체험활동 지원

-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

※ 지역사회 체험자원 지도, 체험자원 안내 책자 제작·배포 등

-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동아리 한마당, 진로체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체험자원 학교 연계
- 지원청 관내 학교별 체험활동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체험자원 활용 시기 분산·조정
- '1교 1학부모지원단' 운영,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강화

VII 향후 일정

- '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2,500교) 운영('15.8~)
 - 2학기 개학 전 교사 연수(5,000여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 설명회 개최(~'15.9)
 - 학교별 진로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 체험활동 준비 완료(~'15.8)
 - 교육부, 교육청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반」 운영('15.10.5~10.8.)

- 각종 법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16.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8)
 - 자유학기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서식 변경(~'16.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발표('15.10)
 - 2015 자유학기제 성과 보고회 개최('15.12)
 -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 수립(~'15.12)
 - '16년 진로 체험처·프로그램 확보, 질 관리·안전 관리(~'16.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16.3~)